

1946년 4월 창간 제 2778호

호남신문

ihonam@naver.com



2019년 9월 10일 (음력 8월 12일) 화요일

순천 폐기물처리시설 공모사업 ‘님비현상’ 심각

별량면 도홍마을 1곳만 신청…매립장시설 빼져 ‘반쪽 공모’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의견 많아…신청요건 완화해야” 주장도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공모사업을 두고 지역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당초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 혹시나 ‘핀피현상’ (Please In My Front Yard 우리 지역으로 와주세요)으로 기대를 모았던 순천 폐기물처리시설이 역시나 ‘님비 현상’ (Not in my front yard 내 뒷마당에 들어오면 안 된다)을 보여 아쉬움을 주고 있다.

순천시 주민들이 대표적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여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초라한 결과를 보였다. 2개월 간의 공모 기간 동안 8개 지역에서 움직임을 보였으나 지난 2일 마감 결과 별량면 도홍마을 1곳만 신청해 요란한 민족의 결과는 가져오지 못했다.

이마저도 4만m²부지에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을 수용한다는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매립장시설(5만m²)이 빠져 있어 반쪽 공모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매립장시설을 따로 공모를 해야 하고, 각각의 장소가 일정 거리 안에 유치되지 않는다면 효율성 문제도 지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는 소각시설(200t/일), 재활용

선별시설(60t/일), 매립시설(5만m²) 등이 한 장소에 들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구상했지만 첫 걸음부터 엇박자를 보여 혼란한 여정이 예고돼 원활한 사업진행은 요원하기만 하다. 더욱이 서면 구상리 경우 서류를 보완키 위해 면사무소를 방문했던 유치위원회 위원장 A씨를 마을이장 정씨가 육설과 함께 폭행을 가한 불상사도 발생했다. A씨는 길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당초 시가 선정 지역에 인센티브 300여억 원과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금 50억 원을 포함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 10%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로 해 지역 간 유치 경쟁을 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환경오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7월 사이 14회에 걸쳐 이장·통장·부녀회원·자치위원 등 760여명이 이산시와 광명시 등의 선진 소각시설을 견학하는 등 높은 지지를 보였던 사안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매립장 시설을 직접 본 지역민들이 생각한 만큼 나쁘지 않다는 공감을 하면서 찬성의견을 많이 보였었다”며 “신청을 앞두고 일부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생기자 추진했던 사람들

대를 추진했던 사람들은 시가 요구한 토지소유자 등으로서 80% 이상과 유치위원회 회의, 마을 회의 서류 등 5가지를 갖추고도 이장이 유치 위원으로 포함되는 내용이 빠져 접수를 하지 못했다.

이 마을은 인접마을 경계선인 300m를 훨씬 벗어난 지점으로 폐금광 터널 3곳이 인접해 있는 곳이다. 유치위원장장을 폭행한 이장은 추진 장소와 1km 거리에 있는 마을에 거주중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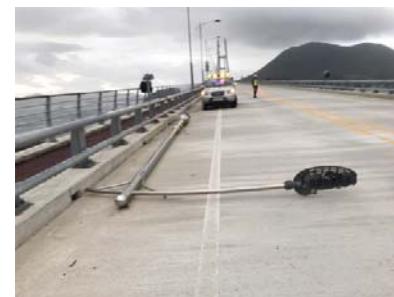


진영 행안부장관, 나주 배 농가 찾아 태풍피해 점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배 떨어짐 피해를 입은 전남 나주시 왕곡면 배 재배농가를 찾아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이민준 도의회 부의장, 강인규 나주시장과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완도군, 태풍 피해 조사 철저·복구 신속하게 한다



신지면 정자 지붕 파손



장보 고대교 가로등 파손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이 무사히 빠져 나가 완도군은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태풍 링링의 최대 순간 풍속은 40m/s, 평균 강우량 25mm를 기록했다. 군에서 집계한 태풍 피해 현황은 8일 오후 6시 기준, 도로 시설 6건, 어항(항만) 시설 3건, 소규모 시설 3건 등 총 13건이며, 수산증

양식 피해는 현재까지는 접수된 것 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공시설은 9월 14일까지, 사유 시설은 9월 17일까지 국기재난방 제시스템(NDMS)에 입력하고, 이후 정밀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특히 다행한 것은 취약계층 어르신 10명을 내습 전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완도군에서는 군청 및 읍·면 직원들과 함께 태풍으로 발

생한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우선 복구 가능한 곳은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제13호 태풍 ‘링링’은 2012년 8월 한반도를 강타했던 ‘불라벤’의 이동 경로와 바람의 세기가 비슷한 강한 태풍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당시 완도에서 초속 51.8m의 최대 순간 풍속을 기록했으며, 무려 4천억이나 되는 재산 피해를 남겼다.

완도=김광수 기자



제19회 곡성심청축제

10월 개최 준비 착착

‘오 마이 갓! 심청페스티벌’

올해로 열어 텁번째를 맞는 곡성심청축제가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열린다.

곡성군은 지난 3일 제19회 곡성심청축제 관계 직원 회의를 마쳤다. 회의에서는 축제 세부 행사 계획을 토대로 축제 발전 방향과 실행 방법을 논의했다.

‘제19회 곡성심청축제’는 올해 ‘오마이갓! 심청 페스티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통과 현대를 잊고 전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색다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축제는 메인 공연무대인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된다. 중앙광장에서는 송가인 등 초청가수 무대는 물론 군민과 지역 예술인이 직접 만드는 공연, 심청 창극 등 문화 공연이 쉴 새 없이 진행된다.

잔디광장에서는 축제 슬로건에 맞춰 매일 3회씩 ‘오 마이 갓립파’라는 이색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깃발 쌓기, 깃을 던져라 등 ‘갓’을 이용한 다양한 대결을 펼쳐 최후의 1인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갓 과 풍선’으로 만든 포토존 등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다.

곡성=김광희 기자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남에는 노사민정 사적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무료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 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

